『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제77호 (2023.12) pp. 155~182 10.21482/jbs.77..202312.155

기복불교 담론 맥락에서 본 동곡 일타 기도지도법의 특징과 의의

진지영(자성)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youngjijin@daum.net

I. 문제 제기
II. 한국불교의 기복성 담론에 대한 통시적 검토
III. 기복에 대한 일타의 수용적 태도의 기저
IV. 일타의 기도지도법이 갖는 특징과 의의
V. 나오는 말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동곡 일타(東谷 日陀, 1929-1999)의 기도지도법이 갖는 특징과 의의를 한국에서 이루어진 기복불교 담론의 맥락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기복적 문화는 전근대적 문화유산으로 부정된다. 불교계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기복적 성격의 불교문화는 극복해야 할 부정적 관습으로 비난받는다. 하지만 일타는 이와 같은 기복에 대한 주류 의견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그렇다면 기복불교에 대한 주류 담론은 어떻게 전개되고, 일타의 입장은 이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기복에 대한 그의 관점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한국불교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II장에서는 한국불교계 내에서 기복에 대한 담론이 특히 활발했던 세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기복적 성격에 대한 담론의 흐름을 짚어보았다. 개항기, 불교정

화운동기, 학계에서 논장(論場)이 펼쳐졌던 2001년이다. 이 과정에서 개항 이후 현재까지도 한국불교계에서는 기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일타가 한국불교 기저에 놓인 기복신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는 41명이나 되는 친인척이 출가한 특별한 가족력 등 일타의 성장 배경이고, 둘째는 한국인의 종교심리에 대한 그의 공감적 이해이다.

일타는 불교 내에 기복신앙을 적합하게 수용하기 위해 한국에서 전해져 온 전통 수행법을 기반으로 기도법을 정비하고, 이를 통칭하여 '법다운 기도'라고 지칭하였다. IV장에서는 그가 제시한 기도법을 개략하고, 기도지도법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한국불교계에 미친 영향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주제어
동곡 일타(1929-1999), 기복, 퇴옹 성철(1912-1993), 종교심리, 법다운 기도법

I. 문제 제기

본 논문은 동곡 일타(東谷 日陀, 1929-1999)의 기도지도법이 갖는 특징과 의의를 한국에서 이루어진 기복불교 담론의 맥락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일타는 20세기 전반(全般)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근현대 한국의 고승[1)]이다. 그는 통합종단 출범 당시 율(律)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통합종단 출범 이후에도 최초 총림인 해인총림[2)]의 율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율사[3)]이다. 그뿐

1) 일연학연구원 편 2000, 459-468.

2) 총림(叢林)은 *vindhya-vaṇa*의 역어로 단림(檀林) 또는 빈다바나(貧陀婆那)라고도 한다. 많은 승려와 속인들이 모인 모습을 나무가 우거진 수풀에 비유한 표현으로, 화합하여 함께 배우며 안거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 등을 모두 갖춘 사찰을 일컫는 말로 쓰이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는 해인총림 해인사·조계총림 송광사·영축총림 통도사·덕숭총림 수덕사·고불총림 백양사·팔공총림 동화사·쌍계총림 쌍계사·금정총림 범어사의 팔대 총림이 있다. 이 중 해인총림은 통합종단 출범 이후 최초의 총림이다(고영섭 2009; 조기룡 2017 참고).

만 아니라 법사로서의 행적도 이 못지않게 많다.[4] 이렇듯 그는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였지만 스스로는 자기 정체성을 선(禪)에 두고 정진했던 선사이다.[5] 따라서 근본에서 보면 그는 불생불멸의 진리, 깨달음을 추구한 간화선 수행자이다. 선 수행자로서 자기 입지가 분명했던 일타가 말년에 다소 독특한 행적을 남긴다. 기도에 관한 책 두 권을 집필한 것이다. 1995년에 출간된 기도 성취영험담 모음집인『기도』와 그다음 해인 1996년에 발간된『생활 속의 기도법』[6]이 그것이다. 이 책들은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일역되어 한국, 일본 두 나라 모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7]

자기 정체성을 참선 수행자로 천명(闡明)하고, 연지(燃指)의 일화[8]가 보여주듯 강한 선 수행의 의지로 평생 안거를 나며 정진한 그의 말년 저술이 왜 선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것일까, 그리고 이 두 책이 한일 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큰 사회적 호응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등 의외의 행적에 여러모로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논자는 한국불교 문화에 내포된 기복적 요소를 바라보는 일타의 관점 및 태도가 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그의 마지막 행적의 특징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증해 보고자 한다. 일타가 활동할 그 당시 한국 불교계에서

---

3) 김경집 2016, 212-218; 김광식 2017, 289-305; 원영 2016, 241-247.

4) 묘주 2016, 283-307.

5) 일타 2013b, 5., "'선과 교와 율 가운데 스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당연히 선이지. 내가 해마다 몇 차례씩 보살계를 설하고 30대부터 인기 법사가 되어 법문도 많이 하였으나, 나의 의지는 참선에 있어, 선이 나의 중심이야.'"

6) 『생활 속의 기도법』의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기도』의 후속집에 해당된다.

7) 이노우에 아츠시(井上 厚史)에 의해『不安を希望に変えた仏教の祈り』(1997)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는 "현대의 일본에서 결여된 것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한국 제일의 노사가 설명하는 한국불교의 정신을 원저에서 번역 (現代の日本に欠けているのは一心に祈ること。韓国第一の老師が説く韓国仏教の精神を原著より翻訳。)"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8) 자현은 일타가 연지한 동기를 율사 일타와 관련짓고 있다. 연지의 장소가 오대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운의 서상수계 영향이었을 것이라고 논증한다(자현 2018, 119). 하지만 일타의 구술에 기초하여 김현준에 의해 기술된 일타의 전기,『아! 일타 큰스님』을 보면 이는『능엄경』「사바라이장」에 입각한 것으로 세속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결정코 도를 이루겠다'는 선 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2015, 170-178).

기복적 요소는 다소 저급한 전근대적 유산으로 부정된다. 승속을 막론하고 불교학계를 비롯하여 불교 쇄신을 논하는 장에서는 기복적 성격의 불교문화는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신과 같은 것으로 분류되고, 극복해야 할 악습으로 비난받는다. 하지만 일타는 이와 같은 기복에 대한 주류 담론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복불교에 관한 담론은 근대 이후 지속된 흐름 속에 있었기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 불교계에서 불교의 기복성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 전개되었는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류 담론과 일타의 관점과의 차이, 차이가 나는 원인 그리고 일타가 기복성 문제를 현실에서 다룬 방식 및 이것이 미친 영향 등을 본 논문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불교계에서 기복성에 대한 담론이 증폭된 세 시기를 중심으로 기복불교 담론의 흐름을 짚어보기로 한다. III장에서는 한국불교 기저에 놓인 기복신앙에 대한 일타의 관점과 그와 같은 관점이 형성된 원인을 추론해 본다. 그리고 IV장에서는 그가 기복신앙을 불교 내로 포섭할 때 제시한 기도법과 기도를 지도한 방식을 개관하고, 그 기도 지도법의 특징과 의의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올곧은 선사이자 율사 그리고 대중적 법사로서 한국 불교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며 수행자의 삶을 산 일타의 마지막 향방에 내포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기복불교 자체를 평가하는데 있지 않음을 밝힌다.

II. 한국불교의 기복성 담론에 대한 통시적 검토

한국불교가 기복적 성격을 띠게 된 원인을 통시적 관점에서 찾으면 한반도에 불교가 유입되어 원시 샤머니즘적 문화를 포섭 혹은 변혁시켜 나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9] 한편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 원인을 한국인이 가

진 종교심리적 중층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종교심리학에서는 말한다.[10] 종교심리적 중층구조란 다양한 종교 관념을 수용함으로 인해 생기는 심적 상태로, 그 기저에는 경험적 현세주의가 깔려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 불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심리적 기제라고 한다. 그리고 경험적 현세주의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기복신앙이다. 이러한 종교심리학적 관점에 의하면 기복신앙은 한국인이 다른 개별적 종교를 수용하는 기저로,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종교 전체의 보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1] 그렇기 때문인지 기복신앙은 한국불교 안에서도 별다른 이질감 없이 공존하며 천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국불교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개항 이후 근대적 학문과 서구문화가 일본을 비롯하여 서구로부터 유입되면서 한국 문화에 깃든 기복신앙은 합리성에 대치되는 전근대적 유물로 분류되어 사회에서 지속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근대 이후 전통불교의 다양한 신행 문화 가운데 기복적 요소는 한국불교가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때가 한국불교의 기복성(祈福性)에 대한 담론이 처음 형성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져 급기야 '기복불교'라는 조어(造語)까지 생기고, 이는 한국불교의 특징 중 하나로 명명되기도 한다.[12] 이러한 지속적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은 한국인이 지닌 종교 심리의 기저이기에 현재까지도 여전히 한국불교 문화 내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불교의 기복적 성격은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기되는, 완결되지 않은 한국불교의 주요 논점 중 하나이다. 그 와중에 한국불교의 기복성에 대한 담론이 특히 활발

9) 김종명 2020, 262-26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7, 9-22; 황인규 2001.

10) 강은애 2019, 240-245.

11) 최정호 2010, 193-196.

12) 기복성을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박재현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한국불교에 기복적 성격이 있고,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흔히 거론된다. 하지만 기복이 한국불교의 특징이냐에 대한 것은 '특징'이 갖추어야 할 조건, 즉 독특성과 전체를 대표할 만한 상징성을 충족하냐의 여부를 세밀히 살펴서 내려야 한다" (박재현 2023, 210-213).

하게 증폭된 시기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았다.

첫째, 근대 개항 이후 일본불교와 서구문화가 유입된 시기이다. 당시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하면서 기존문화 가운데 근대 서구의 합리성이라는 잣대에 맞지 않는 것은 조선의 발전을 저해하는 병폐인 듯 취급되었다. 불교의 기복적 성격 역시 그 연장선에서 비판받는다. 대표적으로 만해 한용운의 기복불교 비판을 들 수 있다. 강은애[13]는 『조선불교유신론』에 서술된 신앙 의례에 대한 그의 태도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리고 만해의 이와 같은 태도를 시대가 요청하는 근대불교로 거듭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시대적 흐름을 읽은 발 빠른 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서구 중심의 근대화론으로 전락할 위험 요소도 있었음을 함께 언급한다. 이 언급은 근대화 · 합리화의 기준이 이미 서구 중심적 사고에 경도된 프레임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외에도 권상로의 『조선불교개혁론』,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 등에서도 기복불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나타난다[14]는 점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당시 불교계의 지식인 가운데 다수는 이를 부정적으로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해방 후 일본불교의 잔재를 씻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확립하려던 시기에 또다시 기복성이 한국불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한다. 특히 불교정화운동(1954-1962)을 기점으로 한국불교계에서 성찰과 자정의 목소리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강하게 표출된다. 출가 승단에서의 대처승의 존재가 논쟁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한국불교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가운데 한국불교의 기복적 문화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승단 내에서는 성철(1912-1993)[15]이 '나'를 중심으로 한 한국

13) 강은애 2019, 259-260.

14) 앞의 논문, 237.

15) 성철은 해인총림 초대방장으로 추대된 후 1967년 12월 4일부터 1968년 2월 18일까지 약 100일에 걸친 법문을 통해 불법이 중도(中道)로 관통됨을 설한다. 그리고 이를 체득하는 방법으로는 화두 참구의 간화선 수행에 비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 참선 외 다른 수

불교의 기복적 문화는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의 참정신에 어긋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특히 다음의 밑줄 쳐진 부분은 성철이 승속 쌍방에서 행해졌던 기복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대목이다. 이를 통해 당시 기복적 행위가 이루어진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 **승려가** 예전과 같이 산중에 앉아서 됫쌀이나, 돈푼이나 가지고 와서 불공해 달라고 하면 그걸 놓고 뚝딱거리면서 **복 주라고 빌고 하는 그런 생활**을 그대로 계속하다가는 불교는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고 맙니다.
> 절에 다니는 **신도도** 또한 그렇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내 자식이 머리만 아파도 쌀되나 가지고 절에 가서 '**아이고 부처님, 우리 자식 얼른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참된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 승려도, 신도도,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산중에 갇혀서 결국에는 아주 망해 버리고 맙니다.[16]

성철은 20세기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17]로 손꼽히기에 그의 발언이 주는 파급력은 컸다. 그의 강력한 발언과 태도는 학계를 비롯하여 불교를 쇄신하고자 하는 측에 힘을 실어 주었고, 큰 호응이 있었다. 하지만 사찰 상황 등 현실적 이유를 언급하며 그의 견해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기류도 승가 내외에서 거세었다고 성철은 기술한다.[18]

일타가 활동한 시기는 성철이 이런 획기적인 발언을 한 시기와 겹친다. 하지만 일타의 책이 출간된 시기는 성철의 입적 이후이다. 일타의 견해와 활동은

행법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진리 추구의 방법으로써 참선의 가치를 강조하고 불교계 내외를 막론하고 진리를 묻는 이에게 참선수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참선수행 외에 불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화방편으로 삼천배, 능엄주, 법신진언 등을 제시한 행적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하는 근본 동기는 이타적 대승 보살행이어야 한다고 공언(公言)하고 ,대중에게 이를 설파한다(백련선서간행회 편 1993 참조).

16) 앞의 책, 88.

17) 문무왕 2016, 72.

18) 백련선서간행회 편 1993, 81, 87, 111.

이후에 논의될 예정이니 여기서는 그가 활동한 시기만 확인하고 구체적 논의는 다음 장으로 미룬다.

셋째, 2001년 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 내에 포진된 기복적 요소에 대한 논쟁의 장이 펼쳐진다.[19] '기복불교를 말한다'라고 하는 기치 아래 『불교평론』의 지면을 통해서이다. 기복의 불교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20]에서부터 시작된 이 논장(論場)에서 네 편의 논문[21]이 발표된다. 논거 차이는 있으나 이때 발표된 논문은 모두 한국불교 내에 현존하는 기복적 성격의 문화에 대해 부정적, 회의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혹은 기복적 성격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명법[22]은 2001년에 있었던 이 논쟁의 배경을 초기불교 연구의 축적으로 본다. 그리고 초기불교 교리에 관한 연구는 서양 근대학문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때 발표된 논문들은 초기불교 연구의 특징을 간과하여 지나치게 경도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전제의 부적절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기복불교에 대한 기존 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대략 위와 같은 담론의 역사적 전개를 보면 개항 이후 한국불교의 기복적 성격은 수행을 근본으로 한 합리적 성격의 불교에 반하는 혹은 자기중심적 안위 추구에만 머물러 중생구제라는 자비정신을 망각한 부정적 문화로 평가받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계뿐만 아니라 불교 쇄신 또는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한국불교 내의 기복적 요소 극복을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는다. 21세기에 들어서야 간혹 명법과 같이 한국불교의 기복적 성격을 다른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기복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주류를 이룬다.

---

19) 이 시기의 전후로 진행된 논쟁의 양상은 류승무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류승무 2015).
20) 홍사성 2001, 10-14.
21) 유동호 2001; 조준호 2001; 한명우 2001; 황인규 2001.
22) 명법 2011, 276-279.

III. 기복에 대한 일타의 수용적 태도의 기저

1. 가계(家系) 41명 출가 등의 특별한 가족력

일타는 신앙심(信仰心) 깊은 불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친인척 41명을 출가케 한 외증조모인 이평등월(李平等月) 보살의 염불 기도의 이적[23]을 비롯하여 그의 부모가 드린 생남불공(生男佛供)에 관한 일화 등 그의 가족사[24]를 통해 속가 가족의 불연(佛緣)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 가계에서 부모를 비롯하여 41명이나 되는 친인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출가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타, 당시 김사의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통도사에서 출가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불교적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일타는 비록 기복적인 행위일망정 지극한 마음이 깃든 불교 신행은 본인과 주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유년 시절부터 자주 듣고 보며 경험하였다. 이후에도 본인을 비롯하여 주변의 기도 가피담(加被談)을 통해 기도 성취가 갖는 긍정적 파급력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뿐 아니라 기도과정에서 획득되는 삼매력(三昧力)은 수행의 중요한 조도방편이 된다는 점도 그가 기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25] 뿐만 아니라 기복적 의도의 기도가 의업(意業)의 측면에서 불교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26] 불교의 본질이 아닌 기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화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불자의 신행 자체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오히려 가피체험이 신행의 강력한 동기가 됨에 주목하여 기복을 완전히 금하기보다는 건전한 기도문화를 형성하여 기복신앙의 긍정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

23) 김현준 2015, 71-73.

24) 앞의 책, 11-28.

25) 일타 1999a, 100-114.

26) 일타는 기복적 목적의 기도와 깨달음을 위한 의지의 발로로써의 기도를 구별한다.

2. 한국인의 종교심리에 대한 공감적 이해

일타는 동시대를 살았던 성철을 가장 큰 선지식으로 여기며 존경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했던 선(禪)에 대한 입지를 세우는데 성철의 영향이 컸음을 일타의 술회에서 짐작할 수 있다.[27][28] 하지만 한국불교 문화에 대한 견해는 확연히 달랐다. 성철은 기복적 형태의 불교가 지속되면 한국불교 다 망한다고 비판[29]하며 기복적 요소를 비롯하여 당시 한국불교 문화의 많은 부분을 비불교적이라고 부정하고 배척하였다.[30] 이와 달리 일타는 한국불교의 기복적 성격 자체를 문제시하거나 기복적이라는 이유로 불자의 신행을 비난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일타가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회고한다.[31] 이런 그였기에 주변 사람들의 정서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각자 아픈 사연을 해결해 보려고 불보살을 찾고, 소위 큰스님을 찾는 불자들에게 불교를 당위적으로만 제시하지는 못했다. 마치 지옥 중생이 불법 만나기 어렵듯이 자기 손톱 밑의 가시가 타인의 죽음보다 더 아프고 절실한 중생은 자신의 당면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이상의 가치인 진리를 추구할 여력이 생긴다는 중생의 생리[32]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가 본 현실에서 불자의

---

27) 혜암 2013, www.youtube.com/watch?v=KN1dk50lGvY (2021.6.25. 검색).

28) 신규탁은 2016년 학술대회에서 일타의 선 사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다. 근현대 선승들의 선 사상을 연구해 온 그는 연구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헌 분석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그가 채택한 문헌은 『선, 삼매로 가는 길』(1991), 『일타화상수월명』(2000), 『일타대종사법어집』(2002)이다. 선 수행에 있어서 성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일타 자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신규탁의 문헌학적 연구에서는 성철과 일타 간의 관계가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타의 선 사상에 관한 연구는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신규탁 2016 참고).

29) 백련선서간행회 편 1993, 88.

30)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시작한 봉암사 결사에서 그의 태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택근 2017, 282-289 참고.

31) BTN 2019, http://www.btn.co.kr/btntv/detail.asp?ls_StSbCode=CATPR_05&PID=P1120&DPID=81036 (2022. 8.15. 검색).

32)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고 본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단계를 설정한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는 이와 같이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욕구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위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상위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상위욕구를 인지한 상태에서는 하위 욕구의 불충족이 상위욕구의 추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위 욕구를 갈구하는 상태에서는 상위욕구

대다수는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불교의 본질적 관점을 인지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그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기복적 태도를 단지 비난만 해서는 현실에서 중생들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그는 참선이 견성성불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른 수행법 역시 궁극에는 견성성불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다.[33] 따라서 기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적합한 수행법에 근거하여 바른 방식으로 기도한다면 직면한 현실적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수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 근거는 불성의 작용이다. 이에 대해 일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불교의 기도는 불성(佛性),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참된 마음자리의 영원 생명·무한능력을 의지하고 개발하는 것인데 비해, 타종교의 기도는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바깥의 절대적인 존재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기도를 하여 가피를 입은 사람은 자기의 참 마음자리 개발을 위해 꾸준히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타종교의 사람들은 자기 개발보다는 절대자를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34]

선승(禪僧) 일타에게 기도란 소원성취라는 사바세계 중생의 현실적 바람과 견성성불이라는 불교의 지향을 잇는 교량(橋梁)이었다. 기도는 현생의 이익을 바라는 중생의 욕구를 수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수행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타는 불교계에서 기복신앙은 불교적이지 않다고 하여 금했을 때 나타날 결과도 짐작했던 것 같다.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인은 종교심리적

를 일으키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에이브러햄 매슬로 2021, 126-142 참고).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일타의 이해는 매슬로의 욕구이론과 맥락이 유사하다.

33) 일타 2013a, 135-178.

34) 일타 1999b, 85.

중층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복신앙은 다른 개별적 종교를 수용하는 경험적 현세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대표적 종교현상 중 하나이다.[35]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종교를 선택하는 한국인의 관심은 그 종교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보다는 그 종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현세적 이익이 무엇인가이다. 이를 빗대어 누군가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와 같은 작은 현세적 이익만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게 한국인이 지닌 종교적 신념이라고 한다. 이런 한국인에게 개종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불교계에서 기복신앙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기복적 신행을 금지할 때 불교계가 새로이 제시하는 비기복적, 합리적 성격의 불교 신행을 하려는 사람보다 기복신앙이 허용되는 다른 종교를 선택하여 개종하려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설사 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서적 위안과 심리적 평안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절에서 자신의 신행이 부정되는 등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부담을 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자의 이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를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타의 기도법은 한국인의 종교 정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불교 신행의 가이드라인으로, 불교정화운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었던 불자의 일탈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Ⅳ. 일타의 기도지도법이 갖는 특징과 의의

1. 일타 기도지도법의 특징

첫째, 기도 성취의 원리를 구조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일타가 제시한 기도 성취의 기제를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도자(祈禱者)가 법다운 기도로 일념삼매에 이르면 자·타력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불보살과 직접 조우(遭

35) 강은애 2019, 240-245.

遇)하여 가피를 입고 그 결과 기도가 성취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기도법으로 제시한 것은 절, 염불, 주력, 간경 등이다. 이는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수행법으로, 한국 불자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불교수행법이다.[36] 그는 특별히 새로운 수행법을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의 전통 불교수행법의 원리와 가치를 그만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를 알고 불자들이 기도의 가피에 대해 확신하며 일념으로 정성껏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그는 거듭 기술한다.[37] 그리고 이 같은 기도를 '법다운 기도'라고 지칭한다.

그는 기도자가 직면한 상황에 따라 기도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하며, 기도를 특별기도와 일상기도로 구분한다. 그리고 기도의 방식에 따라 가피의 형태[38]도 다르다고 설명한다. 특별기도는 당면한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하는 기도로, 속성가피를 바라는 기도이다. 기도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대신 기간을 한정하고, 사력을 다해 간절(懇切)하고 지극(至極)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일념삼매(一念三昧)에 이르면 불보살이 이에 감응한다. 그러면 그 위신력은 몽중가피(夢中加被) 혹은 현전가피(現前加被)의 형태로 현현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바가 성취된다고 한다. 그는 이 특별기도를 재가불자뿐만 아니라 참선 수행자에게도 권장한다. 단기간에 집중된 기도를 통한 가피 체험은 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의 제거 및 수행의 추진력 획득에 유용하다고 그 가치를 제시하며 그들을 설득한다.

반면 일상기도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하루를 단위로 매일 반복하는 기도이다. 불자들이 찾아와 기도법을 물으면 일타는 우선 하는 기도가 있냐고 묻고 있다고 하면 이를 존중하여 기도법을 바꾸지 말고 자신이 하던 기도를 계속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별히 하는 기도가 없다고 하면 '108기도'를 하도록 권했

36) 일타는 불교수행법을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 중 참선 외에 다른 세 수행법은 기도법과 겹친다. 즉, 불교 수행의 목적이 깨달음이라면 원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기도를 통해서도 궁극적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기도의 극치는 깨달음이라고 명시한다 (일타 1999b, 109-114; 일타 2013a, 137-178).

37) 일타 1999b 참고.

38) 가피는 기도 성취 시 나타나는 이적이다. 가피는 그 형태에 따라 몽중가피(夢中加被), 현전가피(現前加被), 명훈가피(冥熏加被)로 나뉘는데, 이를 총칭하여 삼종가피라고 한다 (일타 1999b, 30-47).

다. 108기도[39]는 그가 불자들의 일상 신행을 위해 기존 기도법을 구조화한 것으로 방법은 어렵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서 108번의 절, 잠들기 직전[40]에 108번의 염불, 조석으로 108배와 108염불을 하는 것이다. 매일 이같이 기도한 후 일념으로 발원하면 명훈가피(冥熏加被)를 입어 누구나 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다고 일상기도의 가치와 필요를 설파한다. 그는 특히 잠들기 직전 염불을 중시하여 세심히 지도한다. 108법수(法數)와 심층심리학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를 근거로 염불할 때는 한숨에 108번을 할 수 있을 만큼 일념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41]

둘째, 단지 기도법 제시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을 피드백 받아 점검하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해결책을 구할 때, 혹은 불자들이 불교 신행법을 청할 때 그에 맞는 기도법을 제시해 주고 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108기도법은 일타가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도법을 적합하게 구조화한 것인 만큼 방법을 제시한 후 바르게 실천했는지,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보다 꼼꼼히 점검하였다. 이처럼 기도법을 지도받은 이들은 본인이 가졌던 어려움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자신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인식은 문제 해결 이후에도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여러 사례를 통해 누구나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명훈가피를 입을 수 있는 기도법이 108기도

39) 묘주는 일타의 교화행으로 대기설법, 저술, 광명진언 기도법을 언급하는데 108기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묘주의 논문에 대한 논평자 이성운은 논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기도법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며 일타가 기도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적은 없는지 묻는다. 논장에서의 묘주의 답변은 알 수 없으나 108기도가 이성운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바란다 (묘주 2016, 284-308; 이성운 2016, 309-313).

40) 잠들기 직전에 집중하여 염불해야 하는 이유를, 임종 직전은 다음 생을, 잠들기 직전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하루 24시간 중에서는 잠들기 직전이, 일생에서는 임종 직전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기 직전 기도의 가치를 설명한다 (일타 1999b, 52-62).

41) 절과 염불의 횟수를 108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절도 염불도 횟수에 크게 관계없지만 108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은 108법수의 의미를 환기시켜서 악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쌓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108의 의미를 설명한다. 내전(內典)에서는 108법수, 외전(外典)에서는 심층심리학 이론에 기반하여 108기도법의 원리와 가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타 1999b, 51-79).

법이라고 확신하였고, 108법수(法數)와 심층심리학의 원리를 논거로 하여 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한다.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에 출간한 『기도』에 일타 본인의 경험을 비롯하여 가족, 친구, 도반, 선배, 제자, 신도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많이 수록할 수 있었다. 그는 『기도』의 서문에 "기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데 현재 살아가는 이들의 경험담보다 좋은 것이 없다"[42]고 기술한다. 기도를 통해 가피를 입는 직접 경험이 신행에 좋은 자량이 된다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직접 경험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인지 대중 법문에서도 일화나 영험담을 자주 인용한다.

셋째, 기도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소원 성취를 위한 기복에서 진리 참구의 수행으로 기도의 성격을 점진적으로 전환하였다. 기도를 성취케 하는 것은 불보살의 위신력(威神力)이지만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원을 발하는 주체인 본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며 기도자가 스스로 직접 기도할 것을 권장한다. 스님이나 다른 이가 대신하는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라고 하며 가피를 끌어내는 주체는 기도자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도 성취 이후에는 일상기도를 하도록 하되 가피를 입는 대상을 자신, 가족 등에서 불특정 다수로 점차 확장케 한다. 그리고 기도의 힘이 잦아들면 마지막으로 견성성불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제시한다.[43] 그는 누구나 법에 맞게 기도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소원성취뿐만 아니라 피안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이에 따라 지도하였다.

일타의 논리에 의하면 지극한 기도는 일념삼매(一念三昧)로 이어지고, 일념삼매의 상태에서 소원 성취도, 견성성불의 도과(道果)도 가능하다. 이때 일념삼매는 발원이 성취로 이어지는 관건(關鍵)이고, 도과(道果)를 얻는 자량이다. 따라서 법다운 기도를 하면 불성의 작용으로 궁극에는 견성성불의 길로 이어지니, 의심하지 말고 지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는 적극적으로 권한다. 지속적인

42) 일타 1999a, 7.

43) 일타 1999b, 58-62.

기도는 궁극에는 무구열반(無垢涅槃)을 얻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사람에게 회향하는 불법에 맞는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끈다고 법다운 기도의 최종 가치를 제시한다.[44]

2. 일타 기도지도법의 의의

첫째, 당시 기존 불자가 가질 수 있었던 신행의 방향에 대한 내적 갈등을 해소해 주었다. 일타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 어긋난다면서 기복을 문제시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면으로 반박한다.

>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불교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다."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을 자주 듣기까지 한다.
>
>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다급한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또, 일체 중생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해탈과 관련이 있으니, **따지고 보면 자신을 위하지 않는 기도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45]

더 나아가 일타는 기도를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정의한다. 기도에 대한 이와 같은 간명한 정의는 당시 돈오견성(頓悟見性), 견성성불(見性成佛)과 같은 선불교의 이상에 대한 가치를 알아도 당장 현실의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대다수 불자가 내적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모순을 읽은 그의 현실적 해법이었다고 여겨진다.[46]

불교 교학이 많이 대중화된 지금도 대다수 불자는 불교 신행을 통해 자신의

---

44) BTN 2019, https://www.youtube.com/watch?v=n3sGbdk3EtM (2022. 7. 8. 검색).

45) 일타 1999b, 17.

46) 학계에서는 불교신행자가 겪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갈등을 『불교평론』 7호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다. 그 이후에도 학계 및 신행 현장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미결의 숙제로 남아 있다 (윤남진 2003 참고).

현실적 욕구, 소구소원(所求所願)이 여의원만(如意圓滿)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당시는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간화선 수행은 선원을 중심으로 한국불교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불교 저변을 형성하고 있던 다수의 재가불자가 이를 수용하고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철이 법상(法床)에서 술회한, 장사 되도록 할 목적으로 화두 타러 온 사람의 일화가 당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47] 이처럼 현실과 당위 사이에서 자신이 참된 불자인지에 대해 스스로 회의하고 자책하는 불자들이 일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불자를 불교에서 이탈시키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는 통찰하였다. 불자들이 갈등을 겪는 현실을 접한 그가 해법으로 제시한 기도법은 불교 신앙에 대한 불자들의 내적 갈등을 잠정적으로 종식(終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계를 중심으로 한 교학 불교와 사찰을 중심으로 한 현장 불교 간의 간극, 간화선 수행과 재가불자의 신행법 간의 간극 등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부대중 간의 간극 완화가 일타의 기도지도법이 갖는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리고 『기도』가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연유도 여기에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수행문화의 다양성 회복이다. 성철을 비롯하여 바로 앞선 시기 한국 승단 지도자의 시대적 과제는 '불교를 불교답게' 반석 위에 올리는 것이었다.[48] 그리고 이는 곧 간화선 수행 가풍의 확립이었다.[49] 통합종단에서 출발한 한국불교 최대의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간화선을 정통으로 선언했을 때부터 간화선 수행법은 중심이고, 다른 수행법은 가외로 밀려나는 양상이 되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풍토는 '간화선 지상주의'라

47) 성철은 법상에서 아무리 봐도 공부할 사람이 아닌데 화두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화두를 왜 달라고 하는지 물었더니 장사 잘된다고 해서 화두 배우려 한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KBS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wkGf7OPfmdo (2022. 9.31. 검색).

48) 김종인 2006; 서재영 2007 참고.

49) 이와 관련하여 박재현은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간화선은 조사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마다의 시각과 입장이 반영된 선불교적 코드였다. 시대별로 선문에서는 선풍진작이나 종권수호 혹은 종단보존 등 다양한 문제의식과 목적의식 속에서 간화선을 수용하거나 강조했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간화선이 조사선의 정통임을 역설했다.'고 하며, 근현대 간화선풍의 진작도 이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박재현 2005, 155).

고 비판받기도 한다. 물론 선교병창(禪敎竝彰), 제종포할(諸宗包轄)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전통 수행법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50] 하지만 정체성 확립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서 간화선 외의 다른 수행법은 원론적인 면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변방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불교의 강점이었던 문화다양성 역시 설 자리를 잃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51]

당시 시대적 과제에 공감했던 사부대중은 간화선의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선 수행의 필요성도 공감하며, 선자(禪者)를 공경하였다. 하지만 간화선 수행이 출가수행자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사부대중을 포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만 해도 재가불자들이 화두 참구를 직접 하기 쉬운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문제는 한국불교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부상한다. 이에 일타는 '기타(其他)'가 아니라 '기도(祈禱)'라는 범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재정립한다.

시대적으로 성철을 필두로 하여 일타의 선학(先學)들은 간화선 중심의 수행문화를 정립하여, 한국불교 문화에 습합되어 불교정신을 훼손하는 비불교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화선 중심의 수행문화로 순수성을 확보하려 했던 만큼 한국불교는 획일화되고, 배타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한국불교의 강점인 문화다양성의 훼손은 어쩔 수 없이 감인(堪忍)해야 했다. 일타는 종풍이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문제인 획일성 극복과 문화다양성 회복을 위해 정통성 확립 과정에서 등한시되었던 다른 전통 수행법을 정비하여 기도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행보로 인해 수

50)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제3조. 본종의 소의경전은『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 (대한불교조계종 2015, 종헌 http://elaw.buddhism.or.kr/jsp/lkms3/jsp/regulation/regula tionMain.jsp (2022.9.30. 검색).

51) 만약 대한불교조계종이 통합종단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통합종단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종지의 확립과 함께 한국불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다소 상반되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서재영 2007 참고).

행문화의 다양성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사부대중 간의 접점 형성이다.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통 수행법은 간화선이다. 그런데 이는 선원에서 출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재가자는 간화선 수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복을 위한 기도에 머무는, 수행의 이중적 구조가 한국불교 수행문화의 문제점이라고 강은애는 말한다.[52] 사부대중의 수행이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으로 수렴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현실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에 일타는 기도가 사부대중을 포섭할 수 있는 범주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복을 구하는 이에게는 복을, 수행자에게는 정진력을,[53] 기도를 통해 얻는 가피의 결과는 다르지만 기도의 기제는 같기 때문이다. 즉, 기도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피를 가능케 하는 일념삼매라는 종교적 체험은 기도를 성취한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된다. 기도법을 정비하여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으로 지도한 점에서 그가 수행문화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해결의 단초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의도를 짐작해 본다.

Ⅴ. 나오는 말

이상에서 기복불교 담론의 맥락에서 일타가 제시한 기도법을 분석하고, 기도지도법의 구체적 특징과 의의를 도출해 보았다. 근대 이후 한국불교의 기복성은 비합리적이고 반불교적이라고 다수의 불교계 지식인으로부터 지속해서 비난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불교의 기복성에 대한 담론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일타가 활동한 시기의 기복성에 대한 한국불교계 내의 분위기를 가름해 보았다.

일타는 해방 후 현대 한국불교의 정초를 세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였

52) 강은애 2015, 14-18.

53) 일타도 수행의 조도방편으로써 특별기도를 다섯 번에 걸쳐서 하였다 (일타 1999a, 33-52).

다. 이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대다수가 기복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그는 기복 신앙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불교계 내로 수용하고 그 심리적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논자는 이런 그의 태도가 그가 선지식으로 존경하였던 성철의 태도와 대별되기에 본문에서 비교 서술하였다. 그리고 기복에 대한 일타의 태도 기저를 추적해 본 결과 가계 내 41명의 친인척이 거의 동시에 출가한 그의 특별한 가족력과 한국인의 종교 정서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중생의 현실 삶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III장에서 논증하였다. 이어 IV장에서는 불자의 기복적 욕구를 수용하고 견성성불을 향한 수행의 길로 이끈, 기도지도법의 특징과 의의를 도출해 보았다.

일타의 기도지도법이 갖는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기도 성취의 원리를 구조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둘째, 기도과정을 피드백하며 점검하였다. 셋째, 기도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복 행위에서 견성성불을 위한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기도지도법이 갖는 의의 중 가장 큰 것은 당시 대다수 재가불자가 내적으로 겪었을 심리적 모순을 해소하고 신행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참선 외 다른 여러 수행법을 기도법으로 구조화하여 그 가치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는 간화선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가던 수행풍토에서 수행문화의 다양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일념삼매라는 종교적 체험이 사부대중이 만나는 수행문화의 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그가 제시한 기도법이 한국불교에 깊숙이 내재하여 있지만 비난받고 부정되었던 기복적 요소를 불교적 방식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타가 제시한 기도법과 지도 방식은 익숙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다. 심지어는 논거의 타당성, 불교의 현대화, 보편적 적용 등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부정적 평가가 가해 질 여지도 보인다. 하지만 그가 기도법을 전하고자 했던 대상을 염두에 두면 그의 기도지도법은 그들의 현실 상황과 심리 상태에 적합한 신행 가이드였다. 이는 분명해 보인다. 그의 마지막 행보는 당

시 상황에서 고통을 겪는 중생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불법의 길로 인도하려는 원력행이라는 점이 본문의 논증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여겨진다. 그 당시 사회적 풍토에서 선승들은 간화선이 최상승선이라는 수행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 사실상 그것이 요구되었다. 이런 간화선 중심의 수행문화가 형성되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일타의 이와 같은 행보는 자칫 선사(禪師)로서의 그의 정체성에 누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마지막 행보의 가치가 보다 선명해진다.

참고 문헌 REFERENCES

BTN. 2019. “45명의 스님들이 모두 한가족?” [Are all 45 monks part of the same family?]. https://www.youtube.com/watch?v=n3sGbdk3EtM (2022.7.8. 검색).

BTN. 2019. “인터뷰 다큐 <인연 그리고 법연 3> 19회: 일타스님” [The Interview Documentary <Karma and Dharma 3> Episode 19: Ven. Ilta Sunim]. http://www.btn.co.kr/btntv/detail.asp?ls_StSbCode=CATPR_05&PID=P1120&DPID=81036 (2022.8.15. 검색).

CHO, Joonho (조준호). 2001.「기복불교는 ‘불교’인가」[*“Can Petitionary Buddhism be Called Buddhism?],『불교평론』(*The Buddhist Review*), vol. 7, 16-41.

CHO, Ki-ryong (조기룡). 2017.「해인총림 결성의 배경과 현재적 의의」[“Background and Present-day Significance of the Formation of the Haein Monastic Complex(海印叢林)”],『선학』(*Journal of Seon Studies*), vol. 48, 123-159.

Choi, Jung-ho (최정호). 2010.『복에 관한 담론-기복사상과 한국의 기층문화』[**Discourse on Fortune: Thought of Petitionary Prayers &, Korean Indigenous Culture*], Paju; 돌베개 (Dolbegae).

Donggok Ilta (東谷 日陀), INOUE, Atsushi, tr. (井上 厚史 역). 1997.『不安を希望に変えた仏教の祈り』[**Buddhist Prayer That Turned Anxiety into Hope*], Kyoto: 法藏館 (Hozo-kan).

HAN, Myung woo (한명우). 2001.「기복불교의 실태와 문제점」[*“The Current State and Problem of Petitionary Buddhism”],『불교평론』(*The Buddhist Review*), vol. 7, 65-85.

HONG, Sa seong (홍사성). 2001.「불설과 비불설을 결택하자」[* “Let’s Choose Real Buddha’s Teaching in Buddhist Culture”],『불교평론』(*The Buddhist Review*) vol. 7, 10-14.

Hyeam (혜암). 2013. “일타대종사 법문 살아오신 이야기 1” [The Teachings and Life Stories of Ilta Daejongsa]. https://www.youtube.com/watch?v=KN1dk50lGvY (2021.6.25. 검색).

HWANG, In gyu (황인규). 2001.「기복불교는 왜 생겨났는가」[*“The Origin of Petitionary Buddhism”],『불교평론』(*The Buddhist Review*), vol. 7, 42-64.

Ilta (일타). 1999a.『기도』[**Prayers*], Seoul: 효림 (Hyorim).

_____. 1999b.『생활 속의 기도법』[*How to Pray in Daily Life], Seoul: 효림 (Hyorim).

_____. 2013a.『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Buddhist Mindset & Practice], Seoul: 효림 (Hyorim).

_____. 2013b.『선수행의 길잡이』[*Guide to Seon Practice], Seoul: 효림 (Hyorim).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ed. 1997.『한국불교사상개관』[*An Overview of Korean Buddhist Thought], Seoul: 한국언론자료간행회 (*Korean Press Publish Association).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대한불교조계종). 2015. "종헌" [Monastic Regulations] http://elaw.buddhism.or.kr/jsp/lkms3/jsp/regulation/regulationMain.jsp (2022.9.30. 검색).

KANG, Eun ae (강은애). 2015.『한국선불교 수행론-공안참구(公案參究)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Practical Theory of Sŏn in Korean Buddhism: Focusing on the Kongan(Kōan) Study*]. Seoul: 해조음 (Haejo-eum).

_____. 2019.「만해 한용운의 신행관(信行觀)-『조선불교유신론』을 중심으로」["Manhae Han Yong-un's View of Faith and Practice: Focusing on the *Joseonbulgyoyushinron*"],『불교연구』(*Bulgyo-yongu*), vol. 51, 235-269.

KBS. 2021. "큰스님 성철 2부: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추억의 영상] KBS (1994.1.16.) 방송" [Great Monk Seongcheol Part 2: What Did He Leave for Us? (Memorable Video) KBS Broadcast on January 16, 1994]. https://www.youtube.com/watch?v=wkGf7O Pfmdo (2022.9.30. 검색).

KIM, Hyun joon (김현준). 2015.『아! 일타 큰스님』[*Oh! Great Ven. Ilta], Seoul: 효림 (Hyorim).

KIM, Jong-in (김종인). 2006.「1960년대 한국불교와 성철의 활동: 봉암사결사와 해인총림」[*"Korean Buddhism and Seongcheol's Activities in the 1960s: Bongamsa Association and Haein Chongnim"],『백련불교논집』(*White Lotus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16, 89-125.

KIM, Jong myung (김종명). 2020.「고대 한국의 세속불교: 기원, 전개 및 배경」["Secular Buddhism in Ancient Korea: Its Origins, Development, and Background"],『한국불교학』(*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 93, 255-283.

KIM, Kwang Sik (김광식). 2017.「일타의 지성적 노선과 조계종단의 좌표」["The Reverend

Ilta's Intellectual Line and the Guideline of the Jogye Order"], 『불교연구』 (*Bulgyo-yongu*), vol. 46, 277-312.

KIM, Kyung-Jib (김경집). 2016.「東谷 日陀의 생애와 수행」[*"Life and Practice of Ven. Donggok Ilta"], 『2016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 :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2016 Autumn National Buddhist Conference: Easten Asian Seon and Ven. Donggok Ilta*), Seoul: 한국불교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199-219.

KIM, Tak gen (김택근). 2017.『성철 평전』[**Biography of Ven. Seongcheol*], Seoul: 모과나무 (Mogwanamu).

KO, Young seop (고영섭). 2009.「조계종 五大 叢林의 재검토-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Reexamination on Five Comprehensive Temples, General Ascetic Centers of Jogye School: Focused on History and Culture"], 『보조사상』 (*Journal of Bojo Jinul*), vol. 31, 1-45.

LEE, Sung woon (이성운). 2016.「논평:「동곡당 일타 큰스님의 교화행과 그 의의」를 읽고」[*Review of "Ven. Donggok Ilta's Edification and Its Significance"], 『2016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2016 Autumn National Buddhist Conference: Easten Asian Seon and Ven. Donggok Ilta*), Seoul: 한국불교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309-313.

Maslow, Abraham (에이브러햄 매슬로), OH, Hye kyoung, tr. (오혜경 역). 2021.『동기와 성격』 (*Motivation and Personality)*, Seoul: 연암서가 (Yeonamseoga).

MOON, Mu wang (문무왕). 2016.「퇴옹 성철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시론적 접근」[*"The Initial Approach to the Social Influence of Ven. Toeong Seongcheol(退翁性徹)"], 『불교문화연구』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 Social Affairs*), vol. 16, 69-88.

Myeongbeop (명법). 2011.「여성불교의 관점에서 본 기복불교」[*"Petitionary Buddhism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Buddhism"], 『불교평론』 (*The Buddhist Review*), vol. 49, 276-295.

Myojoo (묘주). 2016.「동곡당 일타 큰스님의 교화행과 그 의의」[*"Ven. Donggok Ilta's Edification and Its Significance"], 『2016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2016 Autumn National Buddhist Conference: Easten Asian Seon and Ven. Donggok Ilta*), Seoul: 한국불교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283-307.

PARK, Jae hyeon (박재현). 2005.「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과 정통성 형성에 관한 연구」["Kanhwa Chan (看話禪) and the Formation of Orthodoxy in Korean Seon Buddhism"], 서울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논문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_____. 2023.「한국 선(禪)의 역사와 특징」["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Seon"],『불교학밀교학연구』(*Journal of Esoteric and Buddhist Studies*), vol. 3, 205-234.

RYU, Seung moo (류승무). 2015.「현대 한국불교 10대 논쟁-기복불교 논쟁」[*"Ten Major Topics in Contemporary Korean Buddhism: Discussion of Petitionary Prayers in Korean Buddhism"],『불교평론』(*The Buddhist Review*), vol. 62, 101-117.

SEO, Jae yeong (서재영). 2007.「봉암사 결사의 정신과 퇴옹성철의 역할」["The Spirit of the Bongamsa Association and the Monk Seongcheol's Role"],『선학』(*Journal of Seon Studies*), vol. 18, 5-30.

SHIN, Gyoo tag (신규탁). 2016.「동곡 일타 대종사의 선사상」["Seon Thought of Ven. Donggok Ilta"],『2016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2016 Autumn National Buddhist Conference: Easten Asian Seon and Ven. Donggok Ilta*), Seoul: 한국불교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345-370.

*The Institute for Studies of Il-Yŏn (일연학연구원), ed. 2000.『일타화상수월명』[**Ven. Ilta's Words Inscripted on Water and Moon*], Seoul: 불교시대사 (*Bulgyosidaesa*).

*White Lotus Seon Publication Society (백련선서간행회), ed. 1993.『성철스님 법어집: 영원한 자유의 길』[**Words of Ven. Seongcheol: the Path to Eternal Freedom*], Gyeongnam: 장경각 (Janggyeonggak).

Wonyoung (원영). 2016.「동곡일타율사의 계율사상」[*"Vinaya Master Donggok Ilta's Thought on *Śīla* & *Vinaya*"],『2016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2016 Autumn National Buddhist Conference: Eastern Asian Seon and Ven. Donggok Ilta*), Seoul: 한국불교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227-248.

YEOM, Jung seop (염중섭). 2018.「한국불교의 계율적인 특징과 현대 조계종의 계율전통-

자운(慈雲)과 일타(日陀)를 중심으로」["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Precepts in Korea and the Preceptive Traditions of the Modern Jogye Order: Focusing on Jaun(慈雲) and Ilta(日陀)"],『종교문화연구』(*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vol. 30, 97-127.

YOO, Dong ho (유동호). 2001.「기복주의를 넘어 공덕주의로」[*"Beyond Petitionary Prayers, Making Merits"],『불교평론』(*The Buddhist Review*), vol. 7, 86-107.

YOON, Nam jin (윤남진). 2003.「기복불교 논쟁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Suggestions for the Discourse on Petitionary Prayers in Korean Buddhism"],『불교평론』(*The Buddhist Review*), vol. 16, 162-179.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Ven. Ilta's Teaching of Prayer in the Discourse about Petitionary Prayers in Korean Buddhism

JIN, Ji-Young (Ven. Ja-su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This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Ven. Donggok Ilta's (1929-1999) teaching of prayer in the context of the discourse about the culture of prayers for particular things in Korean Buddhism. In post-modern Korean society, the religious culture related to petitionary prayers has been denied as part of the pre-modern cultural heritage. Buddhism is not an exception to this trend. Petitionary prayers have been criticized as a negative custom that needs to be overcome. However, Ven. Ilta expressed a different position. This then leads to the questions of how the mainstream discourse on this topic has developed, and what Ven. Ilta's position was. This paper examines how Ven. Ilta's perspective on this issue was embodied in reality and how it influenced the Korean Buddhist community. Section II examines the history of Buddhist discourse about petitionary prayers in Korean Buddhism, focusing on the period of opening the port,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and the academic arguments made in the journal of *The Buddhist Review* in 2001. This discussion shows that the views of petitionary prayers in Korean Buddhism have remained negative. Section III summarizes two reasons why Ven. Ilta took a positive attitude toward petitionary prayers in Korean Buddhism. The first reason is his background—namely, that 41 of his relatives, including all his close family—became *bhikkhu*s or *bhikkhunī*s. The second reason is his sympathetic understanding of Koreans' religious psychology. Section IV

examines Ven. Ilta's teaching of prayer and analyzes its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s in the Korean Buddhist community.

Keywords
Ven. Donggok Ilta(東谷 日陀, 1929-1999), petitionary prayers, Ven. Toeong Seongcheol(退翁性徹, 1912-1993), religious psychology, How to pray to Buddhas

2023년 10월 25일 투고
2023년 12월 04일 심사완료
2023년 12월 05일 게재확정